

‘기적 같은 7-2 승’ 한국 야구, 17년 만의 WBC 8강행



호주전서 2실점 이하·5점차 이상 경우의 수 뚫고 통과 14일 마이애미서 D조 1위와 준준결승...4강 티켓 도전

한국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클래식(WBC) 8강 진출에 성공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의 조별리그 통과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4차전 호주와 경기에서 7-2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조별리그 2승 2패를 기록한 한국은 대만 호주와 동률을 이뤘으나, 최소 실점률에서 앞서 일본(3승)에 이어 2위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이 WBC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은 2009년 준우승 이후 17년 만이다. 인기 힘든 확률이었다. 한국은 이날 호주를 상대로 2실점 이하, 5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8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만을 꺾었던 호주를 그림 같은 결과로 제압했다. 이로써 동맹 팀 간의 대결에서만 따진 실점률에서 한국이 0.1228, 대만과 호주가 0.1296을 기록하며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미국행에 오르게 됐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해 한국시간 14일 오전 7시 30분으로 예정된 8강전을 준비한다. 한국의 준준결승 상대는 D조 1위로 현재 미정이다.

D조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가 나란히 3승을 기록하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들은 12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조 1위를 다툰다.

한국이 8강전에서 승리할 경우, 4강에서는 B조 1위와 A조 2위 국가가 벌인 8강전 승자와 맞붙는다.

B조 1위인 미국이 한국과 D조 1위팀 8강전 승자와 4강에서 맞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기세를 몰아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2009년처럼 일본과 대회 우승컵을 놓고 정면충돌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은 1라운드에서 활약했던 선수 30명 엔트리 변경 가능성 또한 생겼다.

당초 1라운드 합류할 예정이었다가 부상으로 빠졌던 한국계 투수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이 8강부터 대타로 출전할 수도 있다.



6회초 2사 3루 상황에서 김도영이 1타점 적시타를 치고 기뻐하며 1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브라이언이 가세하면 마무리를 맡아 한국의 열거는 뒷문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준결승 4경기는 마이애미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두 곳에서 나뉘어 진행되고, 4강과 결승은 모두 마이애미에서 개최된다.

이날 한국은 김도영(KIA 타이거즈·3루수)-제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즈·좌익수)-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중견수)-안현민(KT 위즈·우익수)-문보경(LG 트윈스·지명타자)-노시환(한화 이글스·1루수)-김주원(NC 다이노스·유격수)-박동원(LG·포수)-신민재(LG 트윈스·2루수)로 선발 타순을 구성했다.

선발투수로는 손주영(LG)이 나섰다. 한국은 2회 선취점을 뽑아냈다. 선두타자 안현민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후속타자 문보경이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3회에는 존스와 이정후가 연속 2루타를 뽑아내면서 1점을 추가했고, 문보경이

포타시 2루타를 만들면서 경기는 4-0이 됐다.

문보경은 5회 2사 2루에서 1타점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한국이 격차를 더욱 벌였다.

한국은 5회말 상대 글렌디닝에게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6회초 2사 3루에서 김도영이 적시타를 만들면서 5점차 리드를 유지했다.

위기는 8회말에 찾아왔다. 1사 2루 상황에서 상대 바자나가 좌전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한국은 실점 없이 추가점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9회초 김도영의 볼넷, 이정후의 타구 당시 나온 상대 실책으로 1사 1·3루 기회를 잡았다. 이어 안현민이 외야 희생플라이를 만들면서 점수를 올렸고, 9회말을 잘 넘겨내면서 마이애미에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클래식(WBC) C조 조별리그 최종전 대한민국과 호주의 경기. 호주를 꺾고 8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예진 “양궁 실업무대 첫 발...팀 빛낼 것”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입단
2026 출정식도 함께 개최
.....
16일부터 국내 3차 선발전
“현재는 AG 출전 1차 목표”



오예진 선수

“실업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만큼, 책임감을 갖고 팀을 빛내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양궁 차세대 스타 오예진이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에 입단하며 이 같은 각오를 전했다.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지난 9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2026 출정식 및 입단식을 개최하며 새 시즌 도약을 예고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 입단하는 오예진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과 정일선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은 감독이 이끄는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주장 최미선을 비롯해 안산, 최예진, 박진영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기대주 오예진이 새롭게 합류해 전력 한층 더 강화됐다. 오예진은 2024년 국가대표로 아시안컵 대회 3관왕을 차지했고, 지난해는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기록했다.

오예진은 “책임감 있게 제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 현재 2026 아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국가대표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가까운 목표다”며 “다음 목표로는 2028 LA 올림픽에서 멋진 꿈을 펼쳐보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여대를 졸업한 오예진은 광주은행 선수단과의 인연이 깊다. 학생 시절

부터 자신을 가르쳐온 김성은 감독을 포함해 학교 선배 사이인 안산과 최미선이 모두 함께한다.

오예진은 “첫 실업팀 입단임에도 큰 걱정은 없었다. 다들 친한 언니들이어서 부담 없이 마음이 편하다”며 “익숙하다 보니 저를 보여주고 에너지를 쓰기보다,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과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에 이어 오예진까지 합류하며 국내 최정상급 전력이 모였다. 성적에 대한 부담도 있을법하지만, 오예진은 당찬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래 부담을 잘 느끼는 편이 아니다.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그 상황을 자체를 즐겨보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날 입단식 행사에 이어서는 출정식이 열렸다. 선수단은 올 시즌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광주여대와 광주은행 감독을 겸임해온 김성은 감독은 이제 광주은행 전임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휘한다.

김 감독은 “현재 오예진을 포함해 3명의 선수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를 준비 중이다. 기회가 된다면 세 선수 모두를 데리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고 언급했다. 주장 최미선과 안산도 “올 한 해 팀을 잘 이끌어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의 이름을 더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오는 16일부터 청주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 출격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역과 상생’ 광주FC, 섬마을 학교 초청 특별 시축

흙 개막전서 전남 진도군 거처분교 교사·학생 초대 행사

프로축구 광주FC가 흙 개막전에서 특별한 시축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광주는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6 흙 개막전에서 전남 진도군 서거처도에 위치한 조도초등학교 거처분교의 이민우 교사와 이예향 학생을 시축자로 초청해 시축을 진행했다.

거처분교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속에서 현재 교사 1명과 학생 1명, 단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학교다. 제한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이민우 교사와 이예향 학생은 서로 의지하며 배움의 공간을 지켜가고 있다.

이번 시축은 지역의 작은 학교 이야기

를 알리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출생률 감소로 학령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농어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학년에 학생이 한 두 명에 불과하거나 학교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5학년인 이예향 학생이 졸업하면 거처분교 역시 폐교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는 흙 개막전을 찾은 관중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미래 세대와 지역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해당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



진도군 서거처도에 위치한 조도초등학교 거처분교의 이민우 교사와 이예향 학생을 시축자로 초청해 시축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FC

‘최대규모’ 전남체전, 구례서 우정·화합 다진다

내달 10~13일 22개 시·군서 23개 종목 7191명 참가

전남 최대 규모 종합체육대회인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1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7191명(선수 4635명·임원 2556명)의 선수단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제64회 대회(6950명)와 비교해 총 241명이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 참가 인원을 보면 광양시가 413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단을 구성했

다. 이어 해남군(381명), 순천시(379명), 여수시(369명), 고흥군(359명), 화순군(35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참가 선수단은 육상, 축구 등 23개 종목에서 시·군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다.

특히 올해 대회는 구례군에서 지난 2012년 제51회 대회 이후 14년 만에 개최되는 전남체전으로 의미를 더한다.

전남 체육인들의 화합과 도민 스포츠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대회는 일부 종목과 경기·대회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대한사이클 연맹 명칭 변경에 따라 자전거 종목이 ‘사이클’로 변경됐으며, 농구 종목은 선수 엔트리가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 당구 종목에서는 캐롬 1쿠션이 추가되며 인원이 1명 증원됐다.

복싱 종목은 대회 기간이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어났고, 탁구 여자 단체전은 기존 50% 반영에서 100% 반영 방식으로 체점 기준이 변경됐다.

송하중 기자